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다음 주일(9월 7일), 교회설립 55주년 기념주일

제6차 성찬식(1~5부예배 시)
가족연합예배(2·3부예배 시)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찬양예배 시)



다음 주일은 충헌교회 설립 5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5년 전, 인현동의 한 가정에서 시작된 충헌교회는 반 세기를 지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의 교회 발자취를 돌아볼 때 오직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전 1:4] 특히 지난 10여 년간은 온 교회에 뿌리박혀 있던 쓴 뿌리(히 12:15)를 뽑아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화된 온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예수님을 믿고 새 피조물로 거듭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 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갈 6:14)

교회설립 기념주일은 1~5부예배 시에 있을 제6차 성찬식으로 인해서 더욱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행 20:28) 가족연합예배로 드리는 2·3부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 교회에 배우신 그리스도의 온충을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시에는 연합찬양대의 특별찬양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55년의 교회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세로운 출발선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8)

"다음 주일, 영아·유아·유치·고통부는 자제 예배"

9월 교회 일정

7일(주일)	교회설립 55주년 기념주일
10일(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17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여전도회, 수요1부예배 후)
20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남전도회, 14:00)

감사의 삶

주께 감사하라 (시편 100:1~5)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감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윗이 쓴 이 위대한 찬송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시 103:1)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이다"(1절)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구해 주심으로써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교회가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감지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니 줄 너희는 알지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2~3절)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어머니, 아버지, 목사, 장로, 집사에 관해 없이 믿음의 군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이다"(4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이 성전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 16:18~19) 하나님은 또한 회회를 향해 지상대명을 주셨습니다. (마 28:19~20) 지금까지 충헌교회는 일만 명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충헌교회의 성도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충헌교회는 지친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선하시니 모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호와를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5절) 그리스도를 주주로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세주 부활하시나. (골 1:7)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 14:2~3)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장막 집이 무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후 5:1)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로 인해 참으로 기뻐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놓고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참으로 감사하 저절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성경본문을 큰 소리로 열 번씩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THANKSGIVING COMMUNION

⁽²³⁾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²⁴⁾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²⁵⁾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²⁶⁾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Corinthians 11:23~26)

On the night in which Jesus was betrayed, He took the bread and cup and gave thanks. Knowing His death was at hand, He still gave thanks to His Father. Not many people think about Jesus' thanksgiving at Communion. As a matter of fact, not many people know that thanksgiving is a major theme of the Bible. Psalm 95:2 begins, "Let us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and Psalm 105:1 says, "Oh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upon His name;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s." Psalm 106:1 and 118:1 similarly say, "Praise the Lord!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lovingkindness is everlasting." The last verse in the last Psalm says,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Jesus constantly gave thanks to His Father, like when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Jn. 11:41), when He fed the five thousand (Jn. 6:11), and when He thought about His Father's grace toward the humble (Mt. 11:25) 1Thessalonians 5:18 sums things up for today's believers,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As we come together for Communion today, let us remember Jesus' thanksgiving and sacrifice.

Jesus gave thanks for the sacrifice of His body, ".....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vv. 23~24) Jesus gave thanks for the pain that would buy our pardon. Why did He give thanks for this suffering sacrifice? Because the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concerning His death,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Is. 53:5~6)

There could be no salvation apart from the cross. Romans 5:8 reminds us,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Jesus asks us to take the bread of Communion in remembrance of Him. Every Communion is to remind us of His suffering and death.

Jesus gave thanks for the shedding of His bloo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 25) Jesus' death ended animal sacrifices. His sacrificial death paid the price for all sin. As John said when he saw Jesus,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Christ is our sacrifice. His blood cleanses us from all sins. Who can understand such love? Christ thanked His Father for the pain and shame of the cross. Every Communion should remind us of His love.

Jesus gave thanks for His second coming,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v. 26) The Christ who died and rose again will come again. Communion reminds us of the promise of ultimate victory. Every time we celebrate Communion we are celebrating the cross, resurrection, and return of our Lord. Every Communion should remind us that the crucified and risen One will be the coming One. When Christ returns Communion will be completed. Some day we will celebrate the return of our conquering King.

Come now and remember Christ with true thanksgiving. Come now and humbly partake of this Communion with wholehearted appreciation and love for the One who sets you free from sin and gives you everlasting life. Come now in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Come now and celebrate the death, resurrection, and return of y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감사의 성찬식

⁽²³⁾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3~26)



김성완 목사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성경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시편 95:2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편 105:1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6:1과 118:1은 매우 흡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요 11:41)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요 6:11) 결혼한 자에게 배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마 11:25)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은 오늘날의 신자들을 위해 핵심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찬식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감사와 희생에 대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이 희생제물 됨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셨습니다. “.....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23~24절)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고통스런 희생에 대해 감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5:8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기억하며 성만찬의 떡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피흘림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됨을 감사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25절) 예수님의 죽음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종결지었습니다. 산 제물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죄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과 수치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림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할 것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찬식은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합니다. 모든 성찬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성찬식은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왕의 재림을 경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아와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기념하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주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함께 축하하기 원합니다. 아멘. ■

성경이 답이다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만물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절묘하고 신비스러워서(시 95:5~6) 인간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렘 10:12~13)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기계보다 더 신비스럽고 더 복잡한 것임을 느끼게 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찬란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

셨나이다”(시 89:11) 이러한 우주는 과연 무한한 것일까? 하나님은 이로써 광대한 우주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공간(Space)은 가장 미묘(극소)한 것에서부터 무한한 것까지 뻗어 있는 연속체 안에서 시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두 방향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초 현미경적인 공간을 살펴보자. 이 수준에 있는 미립자들, 원자들과 분자들은 계속해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미소분자들이 무엇과 같은 것인지 시각적으로는 포착할 수 없으나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체는 이것들로 만들어졌다. 더 묘한 것은 이 분자들은 물체가 아니라 빛처럼 덩어리, 곧 물체로 나타나 뿐 아니라 파장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이들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음을 확실히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공간 자체도 포함된 것이다.(사 45:12)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하늘을 명철로 펴셨다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다.(잠 3:19)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주인이시고(사 42:5)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시며(히 11:3; 시 33:6~9) 집행하시고 주관하신다.(잠 5:8; 사 40:26) 다른 창조설들은 시간이야 공간, 물체, 힘과 액체, 고체들이 이미 존재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그 복잡한 우주만물과 천사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을 만드셨다. 근대에 와서 과학은 보이는 것들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발견하고 있다. 히브리어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를 설명하면서 구속의 역사를 설명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집행하시고(히 1:2~3) 아직도 계속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다.(고전 8:6; 골 1:16~17)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빛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밖에 계시지만 시공간 안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 창조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그 사건이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우주보다 양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다. 그의 존재하신 자체가 우주의 존재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측정 불가능하다.(행 17:24; 고후 3:17; 대하 6:18) 이와 같이 천사들도 또한 우리와 다른 차원이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2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4차원에 있는 것들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천사와 같은 피조물도 어떤 곳이든 정해진 시공간 안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항상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안에도 계시실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체 공간이 하나님을 송두리째 포함할 수는 없다.(행 7:48~50)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우주와 친밀한 관계가 있으시며 그가 지으신 모든 것 하나하나의 주인이시다.(수 2:11; 시 113:5~6) 성경에서 보는 천문학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성경에서는 우주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측정할 수 없는 위대함으로 나타내지만 이것들 또한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시 89:5~6)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기에 그 위대함은 상대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위에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사실상 하나님은 현재의 우주를 멸망시키시고 다른 것을 창조하실 것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다.(벧후 3:12~13; 계 20:11, 21:1) 구약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것은 십자가와 믿는 자들이 중심이 된 창조이다.(사 65:17~18, 66:1~2, 66:22)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상함도 없고 하나님의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것이고 다시 어두운 밤은 없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계 22:3~5)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 사람들



김공국(북지리관장, 사령부장)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자!”라는 주제와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는 표어를 중심으로 복음증거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부는 지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지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80명의 교사와 88명의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사랑부 학생들 대부분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육신적으로도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고 믿음은 용사와 같습니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학생들을 통해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사들은 복음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학생들을 꼭 깨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의 모습은 사랑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기쁨으로 섬기는 교사들의 얼굴에는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시작되는 교사준비기도회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는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열과 육, 경험과 지식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성경의 인도하심과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은 은혜로 충만합니다. 오전 11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본반공부시간과 찬양시간에는 진실한 신앙고백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지체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이 비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창 1:27,31) 이해와 표현의 제한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고백은 누구도 분별하고 정지합니다. 불편한 언어로 목청껏 힘 주어 찬송을 부르는 학생들에게는 음절도, 박자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논리적 이해는 부족하여도 지적장애를 넘어서는, 구원받은 만한 믿음과 진실한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병든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 충성하는 교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혈의 은총 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고난과 역경이 있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도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련한 자를 선교의 도구로

세 번째로 나가는 이번 선교는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건을 내려놓기가 여의치 않았고, 처음 파송될 때보다 나의 경험 속에 갇힌 생각들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지면에 빠질 때가 많았다. 파송될 날 이 가까워오면서 마음은 급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런 속내를 가진 부족한 자에게도 그동안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도 순박하여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기쁨으로 받아들었다. 찬송을 함께 부르지고 하면 거침없이 따라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했다. 말씀을 전하기 전 부담스러웠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쁘게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열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못할을 회개하였다.

어느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한 자녀가 큰 병을 앓고 있었다. 기도해 준다고 했더니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도 함께 부르고 말씀을 읽었다. 딸 셋 중 둘째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하여 무척 알고 싶어하여 전도지를 몇 번씩 반복하여 읽어 주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떠나려 하자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였다. 언어가 서툴어 답답했지만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전하도록 하신 그 품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부족함이 너무도 많은 자신을 복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고 가는 곳마다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다 양 갈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순간간 깨어지지 않는 자야를 생각하면 선교에 깊이 임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도구 삼아 주심에 감사드린다. 우리가 전도했던 그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들은 그 가정들과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했다. 미련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하시면 쓰시는 것이니 기꺼이 순종하며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한다. 끝으로 현지 언어가 미흡하여 너무 답답했지만 준비한 언어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주님! 참으로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박정혜(임사, 9교구 1지역팀)

이 영혼들을 위해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반기기 맞이해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15~16세 된 아들은 자고 있었고, 누누한 모습의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왼쪽 팔을 잃은 장애인이며 4~5세 된 아들은 청얼거리며 울음소리로 제대로 내지 못하며 발가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언어를 읽어 주고 영접기도는 직접 읽게 하며 표정과 손짓을 하며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표정이 '왜 이제야 왔느냐?'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이 나서 동역자와 가운데 서서 울동을 하며 <예수 사랑하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청얼거리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얼마가 열은 일여섯 품에 안은 아기는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였습니다. 울동을 하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위해 저희를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며 온 가족을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동역자 중 한 사람이 다리가 통통 부어 차 옆에 있었는데, 축호전도를 하고 나옴은 저희들에게 열른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급히 가 보니 200~300m 거리에서 10대 중반의 다섯 명의 목동들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 전도를 하려는데 말이 요동을 쳐 전도하던 간신히 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알았다." 고 말하며 전도지를 받아들고 서로 시샘이라도 하듯 읽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한쪽의 그림자 같아 아름다웠습니다. 선교의 여정을 돌아보니 모든 절름절름이 성령님이 인도하셨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지선(임사, 7교구 2지역팀)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때

소감문을 쓰려고 펜을 드니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분주하여 팀훈련에 전념할 수 없었어 별로 준비되지도, 성령충만하지도 못한 무익한 종이었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와 비밀요원의 감시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다. 초롱초롱한 눈을 마주하고 어눌한 언어이지만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절로 참 순순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저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십자가 복음의 도구로 최선을 다하였다.

첫째 날 사역 때부터 비밀요원이 따라다니며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로 하여 치치고 낙심되었지만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지혜를 주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다. 속소머 차량이며 십자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까지도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맑은 미소와 갈망하는 그 눈망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던 예쁜 소녀들, 눈물을 글썽이며 울동을 따라하면서 기뻐하던 청년.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문전기사의 집에서 순순히 복음을 영접하던 그의 아내와 아들의 신한 모습이 눈에 어리고 가슴이 찡해 온다.

시간이 흐르면 저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저들을 위한 계속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다짐해본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 이 부족한 사마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끝으로 마음 졸이며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채은실(임사, 24교구 6지역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일(월)~9월 9일(화)	2교구 3지역	김대웅
9월 1일(월)~9월 9일(화)	15교구 4지역	문호식
9월 2일(화)~9월 10일(수)	9교구 2지역	강홍선
9월 2일(화)~9월 10일(수)	권사회 1팀	이경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9일(화)~8월 27일(수)	12교구 4지역	이인용
8월 20일(수)~8월 28일(목)	대학부 9팀	지규성

날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첫 선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반드시 이유는 세상의 유익을 찾아야 바랬다. "넌, 왜 주지하고 있느냐? 날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주님의

강한 팔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3개월의 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중간 중간 내가 살아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 선교지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예비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드렸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우리는 3인 1조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선교구호를 외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투지로 향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복음만 담대히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침침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강을 건너기도 하고, 눈두렁 발두렁을 지나 한참을 걸어야했다. 벼농사가 한창인 때라 어른들은 논에서 바 십기에 열심히 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찬양까지 따라부르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를 강하게 느끼며 예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었다.

한 가정을 방문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옴에 저 멀리에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연로하신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인제 들어가실지 모를 상황이었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움켜쥐고하며 말씀을 전했다. 알이 들기보다 하셨습니다 "네." 하는 가벼린 목소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신 것 같았다. 주님은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날 불러주시는 것이다. 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 먼 곳에서 날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사역 5월째 되던 날, 이슬람 사원 근처의 마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역을 방해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낙심될 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다. 복음의 증거자로서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사역이었다. "이곳에 약한 영들이 몰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영선(임사, 14교구 연합팀)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예수님과 나

주님은 나에게 샘플같이 솟아나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으므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 주님이 부활한 나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복음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 "높은 산에 올라 외쳐라. 유다 고을마다 알리라." 나는 오늘도 이 찬양을 소리쳐 부르고 있다. 주님이 보내 주신 나의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패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이 복음을 외치고 있다. 기쁜 소식이 온 땅에 퍼져 땅끝까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시길 그 날까지 내 작은 손길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발걸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 나는 오늘도 은혜의 찬양을 소리쳐 부르며 이 땅에 나팔이 되어 울리기를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다. "주님, 나의 입술이 은혜의 찬양을 울려드리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조국래(집사, 24교구)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이며 웬 감사입니까? 죄밖에 지은 일 없는, 그래서 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므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온 교회가 선교를 준비하고 교회주변의 영혼들과 패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우리 삶 속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도 전하는 자가 있어 예수님을 믿었듯이 복음이 전하여져 듣는 마음이 맑아지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수없이 말씀으로 들었던 여전히 믿을 없는 자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을 주시옵소서. 입으로의 찬양이 바뀌어 그리스도의 삶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삶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감격!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며 믿음의 반응과 영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세상의 기쁨과 비교도 되지 않는 참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주님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므로 주님을 전하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담겨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월선(집사, 5교구)

박정석(성도, 19교구)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가가는 화살에는 6명이 소그룹이 되어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그림을 배웁니다. 그들은 저의 생활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있다가도 저 혼자 교회 일을 이유로 빠져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에도 언제나 주님이 우선인 제 모습을 보며 그들은 저에게 격경이런 눈빛으로 말합니다. "몸도 연약한데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믿으라."고.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아파도 교회를 찾고,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지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꿈같이 달콤한지 그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청지기훈련 때 제가 구역식구들과 전하는 내용을 들은 화살의 식구들이 청지기훈련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기에 함께, 가 보자고 권하였습니다. 그 뒤로 화살 식구들은 청지기훈련 때마다 함께 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화살의 한 형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요즘 힘들어 하니 교회에 좀 데리고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였을 때 흔쾌히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주일예배에 저와 함께 참석하고 새가톨릭악기부대 등록하여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저에게 하신 일들을 돌이켜볼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저를 화살로 보내 주셨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않는 화살의 식구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전도를 하는지, 왜 단기선교를 가는지, 이런 중에도 쉬지 않고 왜 주님의 일을 하는지를 그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들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순자(집사, 23교구)



2008년 여름수련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합 3:2)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교사회와의 장년1부 집회를 통해서 주수에 걸쳐 여름수련회 광고를 하였다. 이를 위한 교사기도회도 있었다. 나 역시 2주에 걸쳐 맡겨진 반 학생들에게 수련회에 참석하여 주님께에서 내려 주시는 은혜를 받고 권면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토요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입니다. 건강이 문제입니다."라는 말뿐이었다. 내심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맡기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내가 어찌 학생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겠는가? 기도만 하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수련회 전날 저녁,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했다. 사랑하는 우리 반 현재 4명과 장기 결석으로 제작된 3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령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성산으로 인도하시어, 은혜받게 하소서." 이후 나는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두 명으로부터 받았다. 반면 두 명은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마음은 불안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일 장년1부 수련회인데 가지 말까 봐." "아니, 왜요?" "화생이 한 명도 안 오거든." 잠시 생각하던 아내가 말했다. "교사의 자리라도 채워주세요." 나는 출근버스 안에서 수련회 주제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금요찬양집회가 끝나고 학생 없는 교사로써 외롭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바로 수련회행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주님은 수련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셨다. 수련회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뜨거운 감동을 체험하였다. 더 큰 집을 갖고, 더 높은 지위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보다 더 온전한 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던 물질적 욕구와 자존심이 공격받을 때에 금세라도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발견케 하셨다. 내 의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주님께 그 해법을 찾는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영적 부흥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번 수련회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손끝에 매어 기도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최경환(인수집사, 장년1부)

거듭남의 은총

장년2부 여름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칠을 주님께 감사한다. 나의 생각과 의지로 흔히 말하는 성숙한 삶을 꾸민던 나 자신을 굴복히 여기시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다. 세상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주님의 능력만이 승리이다. 연약한 심령을 굴복히 보시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지하심이 나 자신과 장년2부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수련회가 되었다.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위임목사님의 "언제까지 지갑니까?"라는 이 질문에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이 되었다. 오늘날도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다시 굴복함을 허락하시어 용서하시고 오랜 인내로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준비하게 하신다. 장년2부가 흥건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도록 말씀 주신 주님께 진정 감사드린다.

장정남(인수집사, 장년2부)

십자가의 길

이단을 멀리하라

'이단'에 관하여 구약성경을 총 대표하는 말씀은 십계명의 머리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곧 "너는 나 외에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출 20:3)고 하신 말씀이다. 역설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단이라는 뜻이다. 신약성경에는 이단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구절이 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딤후 3:10),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갈 1:7)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인간들이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며 이단으로 인식된다.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인류구원 계획서이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요 3:16, 14:6)이며 완전한 계시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교회에 처음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영이 들어와서 역사함에 따라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혼란을 획책(고후 11:13-14)하였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들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교훈하였던 것이다. 이단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이단은 성경교리의 논리를 주장한다. 성경교리의 논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역하고 인간이 사적인 관심으로 지어낸 말로, 진리에 어긋난(벧후 2:3-4) 이론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비성경적(행 5:17)이며 반 복음적(갈 1:7)이다.
- ② 이단은 전통부정의 교리로 전통에 역행한다. 전통부정 교리란 사도 시대부터 내려온 제도와 관행을 변형함으로써 교회의 단결을 저해하고 분열을 획책(고전 1:11-12, 11:18-19; 벧후 2:17)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단은 공해사회의 행위로 남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이익을 추구(골 2:4; 고후 2:17; 딤후 6:5)해 나간다.
- ④ 구약의 이단관과 신약의 이단관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같은 것이다. 구약에 있어서 이단의 주제는 "여호와와 아닌 다른 신을 섬김"이고, 신약에 있어서 이단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음"이라 하였다. 여기 두 주제에 나온 여호와와 예수는 같은 분이며 섬김과 믿음이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과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같은 뜻이다.

'이단'이란 성경을 곡해하여 인간이 자기 주관대로 해석(벧후 3:16)하고 주장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시켜 하나님께 세운 교회를 파괴하려는 다른 복음(갈 1:7)이다.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된 영원한 절대적 온전한 진리(딤후 3:16-17)인 신구의 66권을 가감(계 22:18-19)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의를 위반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악한 이단의 종말은 진도의 심판과 영원한 불못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21	이동복	1	장년2부	이영순(1)	1629	김이려나	25	외선부	김옥사나(25)
1622	김상길	1	장년2부	이영순(1)	1630	이보라	17	청년1부	김옥사나(25)
1623	최관희	6	장년2부	이진규(6)	1631	이미소	23	고등부	김남욱(12)
1624	허광희	17	장년1부	이혜숙(18)	1632	김민환	9	장년3부	
1625	강정숙	20	장년2부	이승희(20)	1633	정혜숙	9	장년3부	
1626	김현경	18	청년1부	최정옥(6)	1634	이혜윤	2	장년1부	박광석(5)
1627	이원주	24	청년1부	박근우(6)	1635	이희진	2	장년1부	박광석(5)
1628	김경신	1	청년2부	김미영(10)	1636	김주애	21	청년1부	심혜림(21)

